

# NASA, 달에 일반인 거주 주택단지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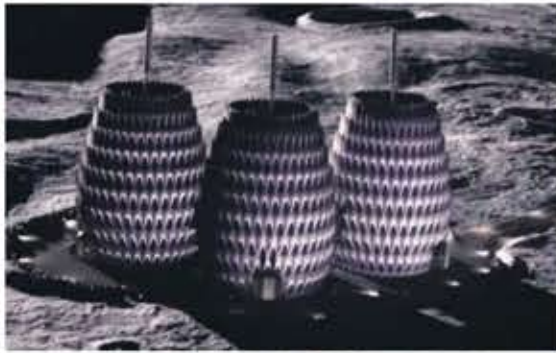
우주인이 아닌 일반인이 달에서 살 수 있는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2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오는 2040년까지 3차원(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달에 일반인 거주용 주택지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니키 웨크하이저 NASA 기술 개발 책임자는 이와 관련해 "모두가 함께 발걸음을 디딜 준비가 됐다."며 "우리가 핵심 능력을 발전시킨다면 불가능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NASA는 달에 존재하는 돌 조각, 광물 파편, 표면에 쌓인 먼지 등 현지 자원을 건축 자재로 활용해 3D 프린터로 집을 짓어낸다는 구상을 세웠다. 3D 프린팅은 3차원 설계도를 기반으로 원재료를 층층이 쌓아 올려 사물을 출력하는 신기술이다.

지난해 NASA는 '달 집짓기 프로젝트'를 위해 미국의 민간기업인 아이콘(ICON)과 57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콘은 미국 텍사스주 등지에서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 주택단지 건설에 나서 주목받았다. 아이콘은 3D 프린터 장비가 달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방사선, 열진공 상태 등 특정 상황에 대비한 실험에 나설 예정이다.



▲ 달에 세워질 주택 단지위와 달 주택 내부 예상도. 사진=spacearch.com

또 나사는 달에 지을 집에 들어갈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해 대학, 민간 기업들과도 협업하고 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인류의 달 탐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 점 등을 생각할 때 집짓기 프로젝트 계획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다.

달에 있는 먼지 등의 물질을 흡입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NASA가 달에 정착지를 건설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화성을 비롯한 심우주 유인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NASA는 내년 달 궤도 유인비행, 2025

년 인류 최초 여성과 유색인종 달 착륙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달에 심우주 유인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NASA는 달 표면의 물이 로켓 연료로 전환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달에 전진기지가 확보될 경우 지구에서 화성으로 여행하는 우주선은 중간에 달에 정차해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

NYT는 "현실화된다면 달에 지어진 3D 프린팅 구조물 내부에서 우주비행사가 다리를 쭉 뻗고, 음식을 먹은 다음 비행 전 연료를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림 마루

모든 비즈니스 상업용, 일반 주택, 신축건물 등등

최고급 정품 독점 디자인 제품  
최저 가격 보장과 완벽 시공



\*\*\*특별세일\*\*\*

도매, 소매 최고급 제품! 100% 방수!

\$1.99 부터

모든제품은 품질보증서와 함께 Lifetime warranty를 드립니다.

무료견적 전화: 714.833.9944

13564 Imperial Hwy. #A, Santa Fe Springs, CA 90670

#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러 쿠니 사시미 **훗집**으로 오세요!

To go 환영



714.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쿠니 사시미 훗집

단체 예약 환영

Opening Hours

Mon-Sat: 3PM-12AM

Sun: 3PM - 10:30PM